

News

우리금융, 다음달 내부등급법 승인 전망...대형 M&A·코로나 지원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을 내부등급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마무리...조만간 '내부등급법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내부등급법 적용시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최대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경우 우리금융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

BC카드,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신청

파이낸셜뉴스

KT 대신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BC카드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1차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케이뱅크에 대한 증거가 시급하다는 판단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코로나19로 경영 타격 받아"

경향비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23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피해실태를 조사...경영상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76.2% 경영상 피해 내용을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자금압박'을 꼽아...

민식이법 뒤풀이에...전쟁터 된 운전자보험 시장

머니투데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4만2,000건의 운전자보험 신계약을 체결 지난해 같은 기간 약 81만건을 체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급증...스콜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 치

코로나로 화재사고 감소, 자보 손해율 80% 초반 유지

국민일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손보사의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5%~82%...올해 4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3.8~84.7%(가마감 기준) 수준 다만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3월과 비교하면 2%포인트 가량 손해율이 올라, 5월 이후 손해율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

과거 고금리상품 판 생보사 한숨던다...공동재보험 6월말 본격 시동

뉴스1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코리안리·RGA·스위스리 등 5개사 뛰어들어..."3개 생보사 재보험사와 협의...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서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Buy-Back)제도 도입은 사실상 무산

금융당국, 고위험 ETF·ETN 기본예탁금 설정 추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ETP 상품들에 대해 고객 기본예탁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최근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 등 고위험 ETF 상품의 투자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

코로나로 주춤했던 ELS, '고수익률' 내세워 다시 시동

조선비즈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ELS 발행 규모는 2조2596억원으로 3월 규모에는 못 미쳤지만 증권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면서 공모 경쟁률은 치솟아...증시가 하락한 뒤에는 상대적으로 손실 확정 구간이 하향 조정돼 손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익률 확정 가능성은 커졌다는 판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